7절 예방접종

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. 노인에서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가 많고, 예방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한다. 또한 유행하는 감염병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로운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.

65세 이상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은 독감(인플루엔자), 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, 폐렴구균, 대상포진이다.

가. 독감

독감은 모든 성인에게서 매년 1회 접종이 권유된다. 9월말-10월 경 예방접종하도록 하며,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모든 성인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.

나. 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

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 예방접종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백신이다. 이전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, 한 번은 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 백신(Tdap)으로 맞는 것이 좋다. 이후 매 10년마다 파상풍-디프테리아 백신(Td) 재접종이 권유된다. 1958년(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 혼합백신(Tdap) 도입시기) 생 이전 출생자의 경우 어릴 때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. 이 경우는 별도의 기본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.

다. 폐렴구균

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서 필요하다. 이전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고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23가 다당백신으로 1회 접종 혹은 13가 단백백신 접종 후 23가 다당백신을 접종한다. 면역저하자(면역결핍증, 만성신부전, 신증후군, 백혈병, 림프종, 암 등), 혹은 비장절제술 등을 받은 환자는 13가 단백백신 접종 후 23가 다당백신을 접종한다.

라. 대상포진

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성인은 1회 접종한다. 50~59세 성인은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따른 통증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회 접종한다. 1회 접종 후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다.

〈표〉 성인예방접종표

	50-59세	60-64세	65세 이상
독감	매년 1회		
파상풍-디프테리아(-백일해)	10년마다 1회		
폐렴구균	위험군만 1-2회		건강상태에 따라 1~2회
대상포진	위험군만 1회	1회	

*최초 1회 접종시에만 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로 접종

해당 연령에서 모두 권장하는 접종

해당 연령 중 위험군(면역저하자, 특정 기저질환 등)에서만 권장하는 접종

▶ 접종 장소: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 기관

▶ 문의: 관할 보건소

☎129(보건복지 콜센터), ☎1339(질병관리본부 콜센터)

〈참고문헌〉

• 질병관리청. (2018).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.

• 대한감염학회. (2019). 성인예방접종표.